

# 시조와 리머릭의 비교

## 이영자

### 〈차례〉

- |                    |                       |
|--------------------|-----------------------|
| I. 처음말             | 4. 시조와 리머릭의 주체 특성     |
| II. 본 말            | 5. 시조의 동음 의의와 리머릭의 암운 |
| 1. 시조와 리머릭의 의미전개   | 6. 시조와 리머릭의 형태 변형     |
| 2. 시조와 리머릭의 노래로의 특 | 7. 시조와 리머릭의 운율 문제     |
| 수성                 | III. 맷는 말             |
| 3. 시조와 리머릭의 대화체    |                       |

## I. 처음말

리처드 러트(Richard Rutt)는 시조번역으로 *The Bamboo Grove*<sup>1)</sup>에서 고금 시조인들의 시조를 내용면으로 분류하고 서문에서 시조가 한국어의 특성에서 생성되어 자란 것이어서 우수하다고 괴력하고 있다. 동시에 「The Korea Times」지를 통하여 리머릭(Limerick) 형태의 시를 빌려서 한국인의 의식구조 생활습성, 사회상에 대한 관점을 창작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세계가 외국시 속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보고 싶다. 곧 많은 외국시의 형태 속에 리머릭을 통해 나타난 것은 시조에 대해 일가견을 가진 리처드 러트가 유사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 본다.

필자는 시조와 리머릭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가설을 세우고 공통점을 발견하려 함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 II. 본 말

### 1. 시조와 리머릭의 의미 전개

리머릭(Limerick)은 에일레 지방의 정형시로서 5행을 가진 속요형태다.

1) Bamboo Grov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Losangeles London 1971, by Richard Rutt.

- There was an Old Man with a beard,
- Who said, "It is Just as I feared  
    Two owls and a Hen  
    four Larks and a Wren  
• Hare all built their nests in my beard!"
- There was a young fellow nemed fisher
- Who was fishing for fish in a fissure;  
    Then a cod with a grin  
    Pulled the fisherman in.....  
    Now they're fishing the fissure for Fisher.

〈Edward Lear<sup>2)</sup>

1. 2. 5 행이 시조의 3 장처럼 놓여서 압운이 heard, feared, beard 와 fisher, fissure, fisher로 되어 1 행과 5 행의 반복 압운이 놓인다. 3. 4 행도 3. 4 행끼리만 압운이 되며 2 행에, 딸린 것처럼 놓여 3 행이 강조되면서 4 행은 무의미하게 딸려 있다.

There was a young Lady Called Bird  
Whose blood by adventure was stirred;  
    from Khartoum to Korea  
    she defied diarrhoea  
On a diet of poi and bean curd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0.9.19〉

이사벨과 버드 비숍, 여사가 콰톰(Khartoum)에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 음식의 흡수적인 체질면에서 다른 것을 쓴 것인데 1 행은 소개, 2 행은 밭달 3. 4 행은 구체적 설명, 5 행은 결론을 짓고 있다. 시조로 번역 하면

젊디 젊은 Bird 아가씨는  
Khartoum에서 한국까지 설사만 하며 오는 것은  
엉켜진 토란 요리와 콩때문에 그렇다.

—(필자 역)—

별로 멀지 않는 거리에서 의미전달이 되고 있다고 본다. 시조가 초장에서 어떤 내용의 소개로써 시작되고 중장에서 밭달시키고 종장에서 이미지를 부

2) Edward Lear: (1812—1888) Poet Laureate [of the Limerick 시집을] 1846:  
A book of nonsense 1871: nonsense sonis

각시켜가면서 여운을 남기는 것이라면 의미 전개방법에서 별차이가 없다고 본다.

행수의 음위율이 다소 변한 리머릭에서 보행수 그대로 번역하고, 시조로 바꾸어 놓아서 내용전개의 유사성을 찾아 보자.

Limerick ④ 번역 ⊕ 시조로 번역 ⊕

⊕ Spring fragrance, The pride of Nam Won,

Rejected all male hangers-on

Till one day in Spring

With a rich boy: and then it wason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1. 11. 6>

⊕ 남원의 춘향이는

뭇남성 거절하고

어느날 봄속으로

헤엄쳐 잡기누나

님과만 한데 어울려 사랑속에 잡겨라.

<필자 역>

⊕ 남원의 춘향이는 뜻남성 거절하고

어느날 봄속으로 헤엄쳐 잡기누나

님과만 한데어울려 사랑속에 들었다.

<필자 역>

『춘향전』이 고금을 통하여 사랑받고,<sup>3)</sup> 있는 일편단심적인 주제를 한국여인상에서 찾아 전개되는 의미 형태의 방법이 같은 것이다. 같은 형식들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Afar-famed Kisaeng of Kaesong

Said, "Life may be brief: art is Long"

Hwang chini should Know

Though she sleep neath the snow

Her sijo are still going strong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2. 1. 8>

⊕ 그대 기생이여

예술은 오래가는 것을

황진이는 알았어라

3) Korea Journal: January 1, 1970. p. 9, by Richard Rutt

눈속에 잠잘지라도  
그의 시조는 빛나는 것을

—필자 역—

- ㊂ 황진이 그대 이름 뛰어난 기생이어라.  
생활은 밑음이며 예술은 오래인걸  
눈속에 잠잘지라도 그의 시로 빛나라.

—필자 역—

㊃ A Construction Ministry clark

Had abit a Lot worse than his bark.  
His particular skill,  
Which he practiced at will,  
Was making each Led a new park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1. 3. 6>

㊄ 어떤 건설부 장관님은

단단한 얼굴로서  
잘도 다듬누나  
마음대로 짓누나  
풀밭을 새공원으로 잘도 만들어 내누나

—필자 역—

㊅ Kim Sak-Kat, the famed poet of spoof,  
From his family Kept quite aloof  
He wandered the Land  
With rainhat in hand  
Like gome kat on a hottin roof

—Rchied Rutt— <The Korean Times, 1970. 9. 19>

㊆ 방랑시인 김삿갓은

집안의 비밀 감추려고  
삿갓을 머리에 쓰고  
나라를 두루돌며  
뜨거운 양철지붕의 삿갓으로 살았네

〈필자 역〉

㊇ 방랑시인 김삿갓은 집안의 비밀 감추려고  
삿갓을 머리에 쓰고 나라를 두루돌아  
뜨거운 양철지붕의 삿갓으로 살았네

〈필자 역〉

의미의 반복이 마지막 장에서 강조되어서 한국특유의 사회상과 사랑관이 나타난다. 시조의 특수한 문법적인 견해에서 중장을 빼버려도 문맥이 이어지

는 것이 시조의 특성이라면 더욱더 비슷한점이 드러난다. 1행과 2행을 초장으로 3. 4 행을 중장으로 보고 5행을 종장으로 본다면

④ A Stylish young chap from pusan  
Took a stroll with umbrella and fan.  
New Yorkers, I fear,  
Would think he was queer;  
But Koreans Would, Call him a man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0. 10. 29>

④ 부산의 멋진젊은이

우산과 부채 들고

(날 유혹하는 가고)  
(나는 두려웠지)

상냥히 벗으로 대해 나를 맞아 주는 걸

<필자 역>

④ 부채와 우산가진 부산의 멋쟁이

(날유혹하는 가고 두려워 하였는데)

상냥히 벗으로 대해 나를 반겨 주었네

<필자 역>

④ There once was a young man from Seoul

who Yearned for a historic role-

(finding nothing to do  
(That was shocking or new, )

He drowned in a makkoli bowl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0. 10. 29>

④ 역사의 영웅 꿈꾸는

서울의 젊은이는

(놀랍고 새로운것)  
(하나도 못남기고)

막걸리 사발만 들고 들이키고 있구나

<필자 역>

④ 역사적 영웅그린 서울의 젊은이는

(놀랍고 새로운것 하나도 못남기고)

막걸리 사발만들고 들이키고 있구나

<필자 역>

④ Here's to kimchi, The koreans' delight

Hurrah for each peppery bite!

(They eat it for lunch,  
For breakfast and brunch, )

And there's a hot time in town every night

—Grafton K. Mintz— <The Korea Times, 1972. 2>

④ 한국의 유별난 김치

아 매운맛!

(점심에

(아침에 아침겸 점심에)

밤마다 매운 김치 먹고 살아가고 있구나

<필자 역>

⊕ 얼얼한 한국김치 품쓰는 그맛

(점심에 아침에 아침겸 점심에도)

밤마다 매운 김치 먹고 살아가고 있구나

<필자 역>

⊕ That beautiful koryo celadon

Is a ges-old Pottery mellowed on

(The dank floors of tombs

(Now in stylish foreign rooms)

Cake is served in what skeletons yellowed on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1. 11. 30>

⊕ 아름다운 고려청자

무덤속 기어나와

(찬란히 빛을 발하네)

(멋진 외국인 방에서)

오래된 고문갑 위에서 다소곳이 있구나

<필자 역>

⊕ 무덤속 기어나온 아름다운 고려청자

(지금은 아주멋진 외국인 방에)

오래된 고분문갑위에서 다소곳이 있구나

<필자 역>

⊕ There once was amayor named kim

Whose city was ruled by his whim

(on apartment did fall- )

(of his rule, that was all)

And we've Since heard, but Little of him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0. 12. 5>

⊕ 김시장이 있었네

시는 그의 손안에

(아파트 값은 춤추고  
그가 한 일은 그것 뿐이네)

우리는 아무런 것도 바랄 수가 없다네

〈필자 역〉

④ 변역스런 김시장 마음대로 시가 춤추고

(아파트 값마저도 그의 손안에 뛰는다)

그외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라

〈필자 역〉

위의 리머릭에서 3·4 행을 빼버려도 문장상에서 시조의 문법같이 1·2 행과 5행이 연결지어진다. 5행으로 번역된 시에서도 역시 3·4 행이 들지 않아도 되며 3장 형태의 시조로 놓아 중장을 빼버려도 리머릭과 같은 의미구조의 전개가 된다.

리머릭의 의미 전개 방법은 첫째, 1행이 시조의 초장처럼 소개로써 시작되고 2행이 시조의 중장처럼 발달단계로 되어 3·4행이 강조되면서 4행이 별 의미없이 보수적으로 놓이고 5행이 시조의 종장처럼 결론을 내린다. 다른 점은 시조가 종장에서 여운을 남기기 위해 초중장과 관계가 없는 말로서 절정을 이룬다면 리머릭은 단지 결론을 내릴뿐이어서 시조가 우수함을 보이고, 둘째, 리머릭의 3·4행이 가진 의미가 들어가지 않아도 문맥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본래의 뜻을 잃지 않는 것처럼 Limerick의 5행으로 번역된 3·4행이나 시조로 고쳐진 3장중에서 종장의 의미를 넣지 않아도 본래의 뜻이 변하지 않는 묘미를 가지는 점이 같다고 본다.

## 2. 시조와 리머릭의 노래로서 특수성

리머릭(Limerick)이 원래 노래로서 출발점을 가진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LIMERICK** The origin of this popular type of nonsense verse is unknown. Langford Reed, the limerick's only historian and principal anthologist suggested that the name derives from a song brought back from France by returning members of the Irish brigade in the 18th century, the chorus of which was "Will you come up to Limerick?" To this chorus impromptu verses were added, telling the adventures of persons from various Irish cities. Reed did not state the source of this tradition, for which there is no confirmation.

The origins of the form are far from clear, though originally it was sung

rather than spoken. There is a suggestion of the form at the close of Aristophanes' drama *The Wasps*, as there is in a number of medieval, lyrics and a song of Stephano's in Shakespeare's *Tempest*. The first known collection of true limericks, entitled *The History of Sixteen Wonderful Old Women*, appeared in 1821 but the term did not officially enter the English language until 1898. Its origin is unknown, and its connection with the Irish city of Limerick is tenuous.

합창단원이 “Will you Come up to Limerick”이란 제목의 노래로 불렸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보다는 노래에 더 가까운 형태이며 이 노래의 형태는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의 극 *The wasps* 나 세익스피어의 *Tempest* 중 stephano의 노래 형태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음악성의 진밀도는 1974년의 Korea Journal 8월호의 Tames Wudes가 Beethoren의 작품에 대해서도 리머릭으로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Sonata-abends are unbending,  
And even can seen quite unending,  
It sure is a Lotta  
Beethoven sonata  
To hear if you're not been intending.

기본적인 리머릭 형태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어서 시가 노래로 불릴수 있는 것은 대중과의 진밀도로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필요 불가결의 조건이며 이 특성은 전승될 수 있는 조건으로 모방성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정 봉주 : 이몸이 죽어죽어 一百番 고쳐죽어  
성 삼문 :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정 봉주 : 白骨이 塵土되어 넉시라도 잊고 업고  
성 삼문 : 蓬萊山 第一峰에 落落長松되야이셔  
(정 봉주 : 님向호 一片丹心이야 가실줄이 이시라  
성 삼문 : 白雪이 滿乾坤할제 獨也青青흐리라.

정 봉주의 시조에 비하여 성 삼문의 시조는 아주 더 발달된 시조의 형태로써 리듬 곧 노래의 특성과 뜻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래로 불리었기 때문에 전승 모방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I momi Chugó kasó muósi toelkonani  
Pongnde-San cheil bonge nangnak changsong toeóttaga  
Paeksóri maóngón gonhél che togach'ónng harira.

높은 리듬의 노래가락으로 물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말로부터 50여년 이후 한국어의 제정으로 발달된 대화체가 시조 속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명백한 증거는 중장에서 한자를 써서 무겁고 전연 다른 리듬이 되는 예로서 시조와 한글과의 맞는 노래적인 특성이 들어나는 것이다. 더욱이 드럼과 같이 칠 때는 *Andante* 와 *tremuloso* 처럼 어울려 특징을 갖는 것이다<sup>3)</sup>.

에이레의 합창단원이 ‘Will you come up to Limerick?’라는 노래로서 에이레 지방에서 공연된 리머릭이 그 시원을 갖고 있듯 시조도 역시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 노래로서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이 같다고 볼 수 있다.

### 3. 시조와 Limerick 의 대화체

리머릭이 문장 중에서 대화체를 택하는 것은 고시조가 거의 ‘하노라’ 형식의 대화체 시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Tere was an old man of st. Bees,  
Who was stung in the arm by a wasp,  
when asked, “Does it hurt?”  
He replied, “No, it doesn’t,  
I’m so glad it wasn’t a hornet.”

—W. S. Gilbert—

oh, my nameis John Wellington Wéllis,  
I’m a dealer in magic and spells,  
In blessings and Curses,  
And ever-filled purses,  
In prophecies, witches and Knells.

—W. S. Gilbert—

A tutor who taught on the flute  
Tried to teach two young tooters to toot.  
Said the two to the tutor,  
“Is it harder to toot, or

4) The Korean Repository, 1896, pp. 45~53, by HOMER. B. HULBERT

To tutor two tooters to toot?"

—Anonymous—

There once was a man who said, "God  
Must think it exceedingly odd

If he finds that this tree

Still continues to be

When there's no one about in the quad."

—Ronald knoy—

There once was a man who said, "Dumm!

It is borne upon ne that I am

An engine that moves

In predestinate grooves,

I'm not even a bus, I'm a train."

—Maurice E. Hare—

가장 훌륭한 리머릭은 “산문적 대화체의 거칠이 없는 표현에 있다”고 E. V. knoy는 말하고 있으며 이 형태는 1970년대의 The korea times 지에도 나타나고 있다.

② A missionary did a slow burn  
And tried to shame Alfie to Learn  
Said Gert, If I study.  
A Language this muddy.  
I'll hare no time Left over to earn."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2. 6. 8>

③ 한 전도사는 어울려서  
배우려 했네 부끄럼이 무엇인가를  
겔트는 “내가 만일  
한국의 혼탁한 언어를 배운다면  
시간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겠네”라하네  
〈필자 역〉

④ 겔트 전도사 한국와서 사는동안  
한국의 혼탁한 언어를 배운다면  
시간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다하네.  
〈필자 역〉

⑤ Musicologist Alan C. Heyman,  
Bobbed up in a kut with a shaman.  
When the uproar subsided,

Alan frankly confided:

„I'll stay, man; but just as a Layman”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2. 2. 29. >

④ 아란 씨 헤이만 음악학자는

무당과 함께 굿노릴 했네.

주위가 조용해지자

비밀스레 말하기를

“머물러 이대로 남아 이곳에서 살고파”

〈필자 역〉

④ 아란씨 헤이만 음악학자는 무당과 춤추었네

주위가 조용하자 비밀스레 말하기를

“머물러 이대로 남아 이곳에서 살고파”

〈필자 역〉

② A bicycle-rider called Ming

Had a fit when his bell wouldn't ring.

“If I don't have a bell

Then my job's shot to hell

Bell no ring, Ming Can't carry a thang!”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0. 9. 12>

④ 자전거 탄 링 아저씨

벨 고장나도 안달났네

“벨이 울리잖으면

나의 직업은 끌장이야

따르릉 울리지 않으면 물건들은 다 옮겼다!

〈필자 역〉

④ 자전거 탄 링 씨 벨고장으로 안달이네

“벨이 울리지 않으면 내 직업은 끌장이야.

따르릉 울리지 않으면 끌장이야”하더라

〈필자 역〉

리머릭 형태속에 “ ”의 대화체 형식을 넣어 시를 짓고 있다. 그대로 시 조속에서 대화체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같은 것이다. 즉 시조 종장과 리머릭의 5 행에 놓이는 형태와 같은 것이다.

시조가 대화체로서 쓰였던 고시조의 경우와 같이 리머릭의 시 형태가 거화의 자(話者)의 말이 등장하여 둘 다 대화체가 쓰임이 비슷하다.

#### 4. 시조와 리머릭의 주제 특성

리머릭은 외국인이 쓴 작품이다. 서양인의 일반적 경향인 예술적 표현이 비유의 과장 형태로서 나타나고, 性을 이야기 하려 하며 비사(秘史)를 즐겨 다루려 한다. 그 중에서 주로 한국의 서울이 타락된 상태를 주제로 한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round the room, all torn and tattered,  
Tittered women blah and blah.

Behind the talk, all rawand ravaged,  
Rattled riddles blahand blah.  
Blah blah blacksheep,

Have you been wool gathering?  
“Yes, sir; yes, sir.” Three bags said

—clifford pfeil— <The Korea Times, 1973. 3. 3>

④ 헤어져 눈물바다

방 나와 웃음바다

거짓 말 들어나는

헤어질때 속임수

가짜양

얼마나 모았냐구요

세 가방은 되지요.

〈필자 역〉

⑤ 헤어져 눈물바다 방 나와 웃음바다.

거짓 말 들어나는 헤어질때 속임수

얼마나 모았냐구요 세 가방은 되지요

〈필자 역〉

— To slaming imp and fiery devil

citizens Hall was a minor revel:

Banquets in the heart of Hell

Still toast the Taeyunkak Hotel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3. 1. 20>

⑥ 불타는 도깨비여 악마의 불길이여

미성년자 부어라 마셔라 홍청이다.

지옥의 길위에서 마음을 풀다가

대연각 큰 불길속에서 구워져서 남누나

〈필자 역〉

④ 불타는 도깨비여 악마의 불길이여  
부어라 마셔라 마음까지 더럽히다  
대연각 큰 불길위에서 구워져서 남았네

〈필자 역〉

⑤ There was a young Lady of Seoul  
with humor delightfully droll.  
she went to a ball  
In nothing at all  
And backed in as a parker House roll

—Richard T. corroy— 〈The Korea Times, 1971. 11. 27〉

⑥ 서울의 아가씨는  
짚궁은 익살구레기  
아무것도 안가진 채  
무도회에 드나든다.  
야구장 공처럼 굴러 무사히 돌아와

〈필자 역〉

⑦ 서울의 아가씨는 짚궁은 익살구레기  
아무것도 안가진 채 무도회에 드나든다.  
야구장 공처럼 굴러 무사히 돌아와

〈필자 역〉

⑧ There was a young fellow named Lee  
Who used to do crosswords with glee,  
Till the day his Soul burned  
When he suddenly learned  
That a female ruff is a rhee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1. 12. 11〉

⑨ 젊은 이군은  
기쁨에 들떠 군자놀이 즐기다가  
마음이 다타버린 걸  
어느날 알았네  
그녀의 마음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걸

〈필자 역〉

⑩ 기쁨에 들떠서 사랑놀이 즐긴 이군  
알았네 어느날 마음이 다타버린 걸  
그녀의 마음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걸

〈필자 역〉

⑪ That frolicsome film titled "Mash"  
In seoul took a near-fatal slash.

preaching peace and free sex  
did the censorship vex:  
The exhibitors must have lost cash

—Richard Rutt— <The Korean Times, 1971. 3. 20>

④ 난봉군 제목을 붙인 영화의 제목이여  
서울은 어지럽게 벤 상처투성이  
평화와 성의 난무가  
안절부절 나침판  
돈잃고 기진맥진한 풀불견의 모습들

〈필자 역〉

④ 난봉군 제목을 붙인 서울의 거리여  
평화와 성의 난무는 안절부절 나침판  
돈잃고 기진맥진한 풀불견의 모습들

〈필자 역〉

한국 여성들의 거짓 사랑과 청소년들의 탈선행위<sup>7)</sup> 깊은 여성들의 생활방법이 지나치게 나쁜 뜻으로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나라를 지키려는 투철한 정신은 외국인의 눈에도 가히 칭찬할만한 일로 비치는 것이다. 리더릭 속에 한국민의 반공 사상이 주제가 되고 있다.

④ A commie called kim made an error  
By trying to sow seeds of terror.  
The Republic, kim found,  
Is solid and sound,  
While his future's progressively barer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1. 3. 20>

④ 빨갱이 김씨는 잘못 알았었지  
힘으로 짓이기려고 가진 고생 다하지만  
한국은  
견고한 나라  
한국은 반공의 나라 지내가며 깨닫네

〈필자 역〉

④ 김씨 빨갱이는 잘못알고 내려왔지  
힘으로 짓이기며 가진 짓 다하지만  
한국은 반공의 나라 지내가며 깨닫네

〈필자 역〉

7) The Korea Times: January, 6, 1972. Taeyun kak Hotel. by James wade

시조가 형태 구조의 특성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것은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사명처럼 여기는 국토 보존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sup>4)</sup> 호국 사상의 개념인 것이다.

정·옹주 혹은 성·삼문의 외골적인 「충성」<sup>5)</sup>은 현대에서 평화적 통일 염원에 의·속된 사상으로 주제의 발원적인 국민의식인 것이다.

리머릭이 다루는 주요 주제는 비유의 과장법으로 性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보존에 대한 집착관념으로 합쳐진 겨레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 5. 시조에서의 말 장난적인 압운

진정한 리머릭은 ‘비비꼬는 말장난’ 같은 압운에서 나타난다.

A tutor who taught on the flute

Tried to teach two young too ters to toot.

Said the two to the tutor

“Is it hard or to toot, or

To tutor two tooters to toot?

—Anomous—

말장난의 압운으로 나타나는 to teach two young too ters to toot/the two to the tutor/to to toot, or/ to tutor two tooters to toot에서 거의 같은 음을 철자만이 다른 것으로 나열하여 가고 있다. 시조에서 보이는 말장난적인 압운을 보면

수박갓치 두렷한 낭아 참외 같은 말씀마소

가지가지 하시는 말이 말마다 원 말이로다.

구시월 핏동아갓치 속속인말 마르시소.

〈무명씨〉

음과 뜻이 일치하여 동음이의(同意異意)의 특색과 비교된다.

Subak-kötchi duryöt-han nima, chámwi-gótun malsún maso, 초장을 비교구로 동등하게 하여 비음과 a 소리를 압운이 되는 음절의 군으로 놓고 두직유를 소리에서 압운이 되는 말로 놀림으로써 강조한다.

kaij-kaji hasinún mari malmada oen mariroda.

4) The Korean Repository: 1896. 8 pp. 203~207, by H. B. HULBERT

6) The Korea Review: 1902. 7, by pp. 326~336.

중장은 두 동음이의 의미 즉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란 뜻을 지니고 또 ‘가지’라는 뜻과 갖가지란 뜻으로 되어있다. ‘원’ 틀리다는 뜻과 ‘오이’ 와 찬(냉정한) 뜻으로 ‘수박, 참외’ 같은 과일로써 직유를 주제화 한다. a 모음의 압운으로 중장 1구에서 i 와 a가 서로 번갈아서 음을 아름답게 하며 3구에서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고 4구는 비음과 유음으로 부드럽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

kusiwǒl psidonga kōtch'i sok sōnggin mal marū siso

는 종장으로서 9, 10월을 합한 혼합구의 반복으로 뜻과 시간 관념을 며나서 한꺼번에 채소가 소개 되는 것이다.

모음의 압운은 초종장에서 o가 많고 양(남성)이나, 명백한 상정인데 비해 음(약한 여성)이나 불분명한 것이 되는 압운을 초종장과 종장에서 대치시키고 있다.

종장 2구는 반복법을 쓰되 치찰음을 넣어 강조하고 통명스러운 직유법을 써서 참외가 말라 시들어진 상태를 나타내고 종장 4구의 marūsiso는 초장 4구의 maso에 대한 압운이다.

그 marūsiso는 초장의 maso 보다 훨씬 치찰음인 것으로 강조하였으며 psidonga의 ‘ps’는 매우 강하다. 말놀림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주제를 명백히 하며 반은 직유, 반은 동음이의로서 끝내려 한다. Soksanggin은 강한 둘 사이의 음에서 중간 소리를 내는 것이다.

결국 말놀이 비교임은 리듬과 소리의 완전한 표현으로 압운을 뜻하며 시조나 리머릭에서 다같이 압운 어휘를 충만하게 살리려는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의 차이를 살핀다면

There was an old Man who supposed



That the Street door was partially closed



But some very Large rat



Are his Couts and his rats



While that futile old Gentleman dозed



Oh, my name is John Wellington Wells,



—Edward Lear—

I'm a dealer in magic and spells,  
In blessings and curses,  
And ever filled purses,  
In prophocies, witches and Knell.

같은 언어나 발음의 반복으로서, 노래 할 수 있는 말 놀이적인 특성을 지닌다. 20세기 초 리머릭은 광범위한 범위로 쓰여졌고 1907년—1908년의 리머릭은 압운이 있는 사전이 봄을 이루어 팔리기까지 하였다. 리머릭의 경우는 동사의 미묘한 변화에 있다고 보겠다. 음란한 일화일지라도 물리학의 경우처럼 몇 가지 일례를 놓고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압운의 약속은 1행의 끝에 놓이는 마을 나라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놓고 풀어가는 시조의 해설적인 반복의 압운과는 좀 다르다고 보겠다.

There was a young fellow named fisher  
Who was fishing for fish in a fissure.  
Then a cod with ugrin  
Pulled the fisher man in  
Now ther're fishing the fissure for fisher

—Edward Lear—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뜻오를이 없건마는  
사람이 체아니 오르고 뵈만 높다 하더라

〈양사언〉

일종의 무의미적인 허튼소리의 리머릭 형태라면 시조는 의미를 지니는 말 장난적인 모음 압운이다.

Tae Sani nopta hadoe hanurarae moeiroda

초장에서 a와 o가 뛰어나게 압운이 되고 단조로운 모음이 되되 i 모음이 산발적으로 놓이면서 문장사이를 잇는다.

T음이 기식음이 되고 있으나 한국어의 특성인 모음사이에서 비교적 약한 음으로 나타난다.

orugo ddo orumyon motorulli opkohn manun

중장에서 오직 성문 파열음 자음은 ddo로서 분명하나, o음으로 쌓여 부드

려워진다. orú의 동일성의 반복이 있고 이것은 감아내는 효과를 지낸다.

#### Sarami cheani orúgo meoman nopta hanani

‘사람’이 강조되며 주제가 드러난다. ‘사람’이 「che」로 반복되고 orúgo는 초장, 중장을 둑어서 결론을 내린다. 이는 중국시의 ‘기, 승, 전, 결’과는 아주 다른 증명이 되며 한국어를 잘 놓음에 따라 자유자재로 말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Limerick는 원래 언어의 뜻이 그리하듯 무의미한 말의 장난. 말 돌림에 있다.

시조는 고시조 작품 중에서 말장난 같은 시조가 있기도 하나 다른점은 동음이의적인 점이 있어서 직유와 은유를 동시에 가지는 점이다.

#### 6. 시조와 Limerick의 형태변형

리머릭의 형태구조 변형은 여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프랑스, 라틴의 리머릭 작가들이 에이레 리머릭 형태도 아니고 프랑스어 답지도 못한 변형 형태를 볼 수 있다.

Il était une jeune fille de Tours  
Un peu vite, qui portait tou Jours  
    Un chapeau billy-coque  
    Un manteau peau-de phoque,  
Et des ptits pantalons de velours.

리머릭의 변형상태는 Ronald knox에서 완전히 비교는 풍자의 기본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There once Was a man who said “God  
Must think it exceedingly odd  
    If he finds that this tree  
    Still continues to be.  
When there's no one about in the quad”

—Ronald knox—

예정된 언어의 압운 즉 1행의 끝에 놓이는 어휘에 따라 놓여야 하는 압운 주장에 대하여 Maurice. E. Hare는 격노하고 다른 어휘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시조에서 반드시 「하노라」형과 같은 것이다.

There once was a man who Said, "Damn!  
It is borne upon me that I am  
An engine that moves  
In prodestinate grooves,  
I'm not even a bus, I'm a train.

그후 20세기는 약간의 리머릭 특징을 잃고 더 즉석에서 쓰여지는 4행의 익살스런 4행 연구로 쓰여갔고 미국시인 4행시 형식을 많이 썼다.

시조도 그 형태구조가 많이 변화하여 '하노라' 형이나 감탄형이 없어지고 행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코리아타임」지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리머릭의 변형 형태는 다음과 같이 5행 형태의 음위율적인 변형으로 3.4행은 1.2.5행과 나란히 놓되 기본형에는 없는 형태다.

② A skittish typhoon, name of Billie,  
Be haved in a manner quiee silly:  
she sat on Som Roks,  
Spreadding wind, waves, and shocks,  
And the R. O. K. took the shock, Willie  
—nilly—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0. 9. 12>

④ 수줍다는 태풍빌리

어리석은 모양으로  
한국에 오더니  
바람주고 물결주고 놀램주고  
그대로 당할수 밖에 어쩔도리 없었네

〈필자 역〉

⑤ 수줍된 태풍빌리 어리석게 물려와서  
한국에와 바람주고 물결주고 놀램주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어쩔도리 없었네

〈필자 역〉

5행으로 된 음위율의 변형외에 7행으로 된 리머릭의 형태도 있다.

Despite Dotty parker's great fame  
The years have refuted her claim  
That men don't make pusses

At girls who wear glasses,  
Though some of the yokels  
Avoid the hifocals.....  
It must be the frame is to blame:

〈The Korea Times, 1974. 11. 23〉

리머릭의 기본형태 1. 2. 3 행의 비율이 특징이나 차츰 풍자성을 떠나고 있고 행수도 4 행<sup>7)</sup> 혹은 5 행을 나란히 한 5 행 또는 7 행으로 변하고 있다. 시조도 3 장에서 차츰 6 행, 7 행으로 변하고 있고 자연만 읊는 상태에서 좀더 내면의 세계로 바뀌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7. 시조와 리머릭 (Limerick) · 운율문제

리머릭의 운율은 일반적인 운율이 강약 강약 혹은 강약약 형태인데 비하여 약약강격 (××—), 단단강격 (VV—)으로 되어 있다. 즉 약하거나 혹은 강조하지 않는 음절 둘에 강조하는 음절이 하나 놓이는 형태다.

× × — × × —  
There was an old Man/with a beard  
× × — × —  
Who said “It is Just/as I feared  
× × —  
Two owls and a Hen,/ —  
× × —  
four Larks and a wren/  
× × — × × —  
Have all built their nssts in my beard!”/

변형된 형태의 리머릭 (Limerick)에서 마찬가지의 약약강형이다.

⊕ × × — × × —  
② There was a sweet girl of Taegu  
× × — × × —  
Who ought to have Lived in a Zoo  
× ×  
If any young buck  
× × —  
Should call her a buck  
× × — × × —  
She'd answer by making a mouse

—Richard Rutt— 〈The Korea Times 1971. 11. 20〉

⊕ 대구의 예쁜처녀 /

7) Stylus Shavings-VIII: The Korea Times. 2. 24 1973.

우리 안 삶이어라/  
한젊은 숫사슴이/  
그녀를 불러봐도/  
지프린 얼굴로 보며/대꾸하려 할거네/

〈필자 역〉

㊣ 대구의 예쁜아가씨/우리 안 삶이어라.  
한 젊은 숫사슴이/오리를 부른다면  
지프린 얼굴로보며/대꾸하려 할거네

〈필자 역〉

필자의 번역에서 보여준 운율과 리머릭의 차이는 시조가 리머릭의 행간에 서 보이는 점(쉼)표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조는 운율적 동일의 3.4 음절 형태가 자유로우며 악센트가 가지는 운율도 아니다. 음절에서 이루는 자음 모음의 어울림에서 특히 모음이 이루는 리드미칼한 형태다. 약약강 형태는 시조의 초·중·종장 전체의 ‘약약 강형으로 동서양의 차이의 본질 구조도 자음의 규칙적인 리머릭과는 다르다. 단지 약약강이라는 주기적인 리듬의 특이성이 시조의 초·중·종장에서 약한 리듬을 이루다가 종장에서 강한 언어의 리듬으로 되는 현상과는 비슷하다.

또한 3.4 음절 형태의 무리없는 리듬이라 보면 언어의 마디가 가지는 쉼은 약한 상태로서도 나뉘어 지는 특이성이 있다. 음절의 반복적인 상태인 초장 1구, 3구 중장의 1구, 3구의 3자는 음적인 숫자로서 부드럽고 시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음절이다. 종장에서 결정적인 초구의 3음절과 풀어주는 끝구의 음절은 시조의 중요 특수성인 우수성이 된다. 단 시조안에서의 반복이 3회로서 가장 많은 회수를 나타내는 것은 율격적인 면의 시적 이미지의 불안정성의 서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4음절은 주로 양적인 의미로 초장 2구, 4구 중장 2구, 4구의 4음절은 먼저 음절 3을 조절하고 보호 한다. 안정성을 뒷받침 해주고 3음절의 미를 둘보이게 한다. 종장에서 단 한번의 회수로서 산문성을 슬그머니 감추고 마무리 짓는 종장의 3음절을 돋는다.

그러나 행수의 짜임은 현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Limerick 도 행수변형을 보이고 자유군의 반복 규칙도 자유로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단지 리머릭의 운율이 「약약강」에 에 있는 것과 시조의 초장 중장의 의미나 소리가 다소 약하다. 종장에서 강해지는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III. 맷는말

리머릭은 에이레 지방의 속요로서 5행을 가졌는데 1·2·5 행이 압운을 이루어 시조처럼 3장으로 나란히 놓이고 3·4 행이 2행에 떨린 것처럼 2행 5행 사이에서 놓여 의미 전개 방법이 1행은 시조의 초장처럼 소개로서 시작되고 2행도 시조의 중장처럼 발달 단계로 된다. 리머릭(Limerick)의 3·4 행의 4행이 별 의미없이 놓이고, 5행이 시조의 종장처럼 결론을 내린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점은 시조가 종장에서 여운을 남기기 위해 초중장과 관계없는 말로써 돌려 절정을 이룬다면 리머릭은 단지 결론을 내릴 뿐이라고 보겠다.

리머릭의 첫 출발도 합창단원의 'Will you come up to Limerick'라는 노래로서 에이레 지방에서 공연하게 됨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고 말보다는 노래의 특성을 지녀 시조가 음악적인 요소를 갖는 기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리머릭의 문장이 거의 화자(話者)가 표면화되는 것처럼 고시조의 '하노라' 형태도 같은 동일성을 보여 준다고 보겠다.

리머릭의 주제는 비유의 과장법을 많이 쓰고 특히 성(性)의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은 무명씨의 고시조의 사랑 노래와 비슷한 점이다.

리머릭이 원래 언어의 뜻이 그려하듯 무미한 말의 장난 말 돌림에 있는 것이 특징이듯 시조가 동음이의적인 말놀이의 압운을 이룸과 비슷하다.

리머릭이 풍자성을 떠나 익살스런 형태로써 바뀌어 간다면 시조도 자연 사상의 주제에서 좀더 현대적 다양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대조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리머릭의 운율이 「약약강」형에 있는 것은 시조는 각 장마다 쉽을 사이로 리듬을 살리고 내재적 구성이나 소리가 초중장에서 약하다가 종장에서 강해지는 현상과 비슷한 점이다.

이것은 동양사상의 전통적이고 종합적인 수용에서 우리의 사상 감정이 싹터 왔음에서다. 리머릭이 예정된 압운의 자음으로 정해진 데 비해 시조는 3·4 음절의 조화적인 리듬이되 3 음절의 규칙이 더 많아 시적 서정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동서양의 시적인 면의 공통성 곧 시의 본질 구조인 것이다.

〈본 학회 회원 · 시조시인 · 정회여상고 교사〉

〈참고 문헌〉

Literature popular Culture and Society: 1961 by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mboo Grotto: 1971, by Richard Rut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Losangeles London

The Korea Review 1902

The Korea Times: 1970~1974년 韓國日報社 리마리 작품

The Korea Repository 1896.

Anthology of Chinese Literature: from early times to the fourteenth century,  
Compiled and edited by CYRIL BiRch associte editor Donald Keene copyright  
© 1965 by Grove Press, Inc All Rights Reserved.

Anthology of Japanese Literature: from the earlist era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Compiled and edited by Donald Keene Copyright Act 1911

The Korea Journal: 1974 ct. 8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oul.

珍本青丘永言：俞昌植 鄭鉉東 校註，新生文化社，1967.